

전남도 '민원메신저' 소통도정 실현

진도서 이틀간 역량 강화 연찬회 행정-도민 '징검다리' 중요 역할 위촉장 수여·권역별 발전방안 토론

전남도가 지난달 30일까지 2일간 솔비치 리조트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행정과 도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12기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사진〉 민원메신저 2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된 연찬회는 신규 민원메신저 16명 위촉장 수여와 권역별 발전방안 자유토론 등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운영됐다.

2003년부터 도민의 일상생활 속 고충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며, 도정정책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소통도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원메신저는 명예직 자원봉사자단체로 현재 297명이 활동 중이다.

제12기가 구성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나 민원메신저의 열정적 활동으로 지난해 말 실적 755건을 넘어선 758건의 도민 불편 사항을 제보해 올해 말까지 목표 1000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메신저는 쓰레기 방지, 교통안전 표지판 위치 변경, 파손 도로 위험 노출, 도로변 가로수 교통 방해 등 도민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있다. 이소현 민원메신저 대표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도민 불편사항을 제보해 하나씩 개선하고 바뀌갈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민원메신저 간 친목과 정보 공유로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 사항까지 꼼꼼하게 찾아 신속하게 제보하는 민원메신저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민원메신저 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수목원, 유물·기록물 구입 민속자료·예술품·문헌자료 등

전남도완도수목원이 산림박물관의 전시·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 역사와 문화가 담긴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을 매입한다.

매입 대상 자료는 산림 및 완도지역과 관련된 민속자료, 황칠공예·목공예·화각공예 등 목재 예술품, 지도·고문서 등 문헌 자료 등으로 산림 역사와 문화가 담긴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이다. 유물 매도를 바라는 개인,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단체는 전남도 누리집 고사·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전자우편(nuead12@korea.kr)을 이용하거나 완도수목원에 방문해 오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하며, 도굴·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불분명한 자료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물 선정 및 가격은 서류 심사 후 유물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며 매입 대상 유물은 불법문화재 여부 등 사전 검증을 거친 후 확정한다.

전남도 산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공개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향후 산림 역사·문화 연구 및 특별전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안정적 일자리로 청년들 지역 정착 돕는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혁신유통전문가 간담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28일 호태현 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도내 6개 군 청년근로자 및 지자체 담당자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사업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의 지원으로 진흥원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임미라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관련 특강을 시작으로 참여중인 청년근로자들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인용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일자리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내 고흥, 구례, 보성, 장흥, 영암, 신안 6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자치경찰위, 아동 보호활동 강화 나서

아동안전지킴이 현장 간담회, 애로사항·제도 개선 의견 수렴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목포 부주파출소와 나주 빛가람지구대를 잇따라 방문해 아동안전지킴이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아동 보호를 위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살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전남 21개 경찰서에서 총 818명이 활동 중이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 통학로, 학교 주변 공원, 놀이터 등지에서 비행선도, 실종 예방, 교통 지도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치안보조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주 활동 인원의 노령화되고, 수당이 낮아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체력평가 기준을 상향(보행검사와 눈뜨고 외발서기 등)하고, 모집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동안전지킴이뿐만 아니라 전남경찰청과 경찰서, 파출소장 등 업무 관련 경찰관

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실제 순찰 후 결과 정리하는 것까지 근무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동안전지킴이들은 혹서기·혹한기 인근 초등학교의 일일 장소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여름철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밀집모자 형태(페도라형)의 근무 모자 제공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선발 기준에서 체력평가 상향의 변별력 여부, 아동의 행동·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인근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폭력 등 학생 안전 전반에 대해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간 시간대 자율방범대의 학교 순찰 등에 대해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쉬다가게” SNS 인증하세요

전남도·관광재단, 16일까지 민간관광안내소 64곳 방문자 대상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순천만 정원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 개최시기에 맞춰 오는 16일까지 '전남 쉬다가게' 민간관광안내소 방문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남도가 24시간 빈틈 없는 관광지 친절한 관광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광지 내 숙박시설, 카페 등 핫플레이스 중심으로 지정된 민간관광안내소 '전남 쉬다가게'를 알리고 체류형 전남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iinto.or.kr)에서 민간관광안내소를 확인·방문후 재단 SNS(인스타그램 @jeollajoa) 방문 후 팔로우하고,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전남쉬다가게 #민간관광안내소 #전남관광재단 #관광지명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는 7월 16

일까지이며, 7월 24일 경품 당첨자는 전남관광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한다.

이벤트 당첨 상품은 여수리마다프라자호텔 숙박권, 보성녹차떡갈비원조 식사권 등 도내 민간관광안내소를 한 번 더 즐길 수 있는 남도의 맛과 맛을 담은 경품으로 총 56명에게 제공된다.

민간관광안내소 '전남 쉬다가게'는 관광안내소의 운영시간과 접근성편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남도가 추진한 소비자 맞춤형 정책 개선 사업으로 관광지 인근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도민이 직접도 관광안내자가 되는 제도다.

'전남 쉬다가게'는 2022년 58곳을 선정하 이후 2023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신규 민간시설 6곳을 추가 선정해 22개 도내 시·군 총 64곳에서 운영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쌀, 17년 연속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 대상'

품종부터 도정까지 철저한 관리... 품질·식미 만족도 높아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25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친환경 쌀 부문에서 전남 쌀이 17년 연속 선정됐다.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전국 만 20~59세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와 전문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종합해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선정한다.

전남도는 전국 친환경 비 인증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유기농 비 면적은 전국 면적의 74%로 청정 지역의 유기농·저탄소 쌀로 평가받았으며, 전국 각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어 선정위원

회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소비자에게 고품질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비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벼가공·건조·저장 시설 지원을 통해 품종에서부터 도정 시설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품질, 식미까지 소비자 만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매년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전남 친환경 쌀이 소비자에게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최근 해외에서도 전남 친환경 쌀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전남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